




웹진 <해안선>에 접속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을 만나세요!



바다,
휴식을 품다

바다, 휴식을 품다

발행인 김경석 이사장
발행일 2022년 6월 24일(통권 50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엔세이션
표지 일러스트 이신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기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lk of the Sea

04

포토 海세이

바다, 진정한 심을 부른다



08

에코 트래블

그림 하나에 낭만, 걸음 하나에 심
고흥 연흥도

14

플레이존

투명하게! 짜릿하게!
에메랄드빛 바다로 떠나는 힐링 여행

18

바다를 품은 식탁

집 나간 입맛을 불러들일
전복 맛 좀 보세요!

Playing by the Sea

20

KOMSA 스테이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의 행복인 바다
믿음과 신뢰로 한 걸음 더! 동해지사

26

바다가 그린 삶

안전한 바다에서 행복을 누는 사람들
삼척 오분리 어촌계

30

슬기로운 바다생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해안가 차박 에티켓

32

바다 옆 박물관

바다 지킴이 등대의 역사가 이곳에!
국립등대박물관



34

바다를 부탁해

해양생태계의 포식자 불가사리,
얼어붙은 눈 녹이는 제설제로 재탄생!

36

바다 큰 사전

이번 기회 꼭 알아두자!
해상 기상 특보 용어

Chorus for the Sea

38

KOMSA 브레이크 타임

온전한 힐링을 꿈꾸는 곳
그 여름, 치유의 숲에 가다



42

좁인 KOMSA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KOMSA
<나랏늑> 시즌 3와 만나다!

46

스마트한 KOMSA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선 설계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착수

48

KOMSA 뉴스 라운지

49

KOMSA 네트워크

50

함께海요

이벤트

바다, 진정한 심을 부른다

손끝에 와닿는 시원한 물기와 철썩이는 파도 소리에 가슴이 설렌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이유, 바로 바다가 있어서다.

Text. 최미혜



자유와 설렘, 휴식이 공존하는 양양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나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이 필요할 때,
우리는 바다를 떠올린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씻겨 내려갈 것 같은 바다를
갈망한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도심을 벗어나
기꺼이 향하는 곳.
목적지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강원도,
동해다.
강원도 중앙에 위치한 양양군에는
포구 마을이 길게 늘어진 항구와
해변이 자리한다.
강원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남애항에서는 그림 같은 해변과
아담한 항구를 품에 안은 채
붉게 타오르는 해돋이를 볼 수 있고,
북쪽 물치리에서 남쪽 지경리까지

이어진 해변이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여름이면 설악해변, 낙산해변,
하조대해변, 죽도해변 등
바다와 땅이 조심스럽게 맞닿는 곳에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하다.
특히 하조대해변 부근에는 길이
1km에 달하는 서핑 전용 해변이
조성되어 수많은 서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서프보드를 타고 파도와 하나가 되어
바다 위를 부유하는 시간.
질푸른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순간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향한 바다.
내뱉는 숨마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곳에 머물고 싶다.

그림 하나에 낭만,
걸음 하나에 심

—
고
흥
연
흥
도

다시 여행길이 열렸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떠날 준비를 한다. 그간의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기라도 하듯. 너도나도 계획을 세우기 바쁜 걸 보니 아마도 휴가철 전국 여행지는 사람들로 붐빌 모양새다. 울어름, 호들갑스럽지 않게 조용히, 한곳에 집중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걷기 좋은 섬이자 섬 자체가 미술관인 연흥도를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Text: 임혜경 Photo: 정우철

익숙한 듯 낯선 고흥

전라남도 고흥군. 남도는 워낙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아 여행으로 자주 찾지만, 고흥에 머물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남도여행 중 지나가는 길, 이정표에서 많이 봤던 곳이라 익숙한 정도였을 뿐. 서울 기준으로 먼 곳이라서 가려거든 큰 결심을 하고 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여행의 백미는 떠나는 것과 새로운 곳을 알아가는 재미가 아니던가. 이번 기회에 고흥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알아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고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 전망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흥을 두고 '항공우주도시'라고 부른다. 나로우주센터와 가까운 우주발사 전망대는 해안절경이 뛰어나 고흥의 랜드마크가 된지 오래다. 인근에는 나로우주센터의 이름을 딴 나로우주해수욕장, 나로힐링캠핑장 등이 있어 한적한 여행을 즐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한다. 푸른 백사장을 걸으며 햇볕이 뜨거워질

① —



66

소박한 일상의 풍경들이 담장마다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연흥도가 왜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지 알게 된다.

99

②
|



③
|



때쯤이면 그늘진 소나무 숲에서 쉬다가, 갯바위 낚시를 즐기며 하루를 온전히 여유롭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 불러일으키는 연흥도로

나로우주센터도, 그 옆에 바다도, 캠핑장도 다 좋았지만, 눈에 들어온 여행지가 있었다. 바로 연흥도다. '지붕 없는 미술관, 연흥도'라는 카피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고흥군청 기준으로 차로 30분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는 섬 연흥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신양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배를 탄다고 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다'라는 말이 생각날 만큼 찰나에 도착하니깐. 시간으로 말하면 3분 남짓이다. 하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배 시간. 하루에 7번 운행하는 배 시간을 잘 알아보고 움직여야 한다. 배 시간이 어긋나면 그 다음 배를 타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 1 신양선착장에서 배로 3분 거리에 자리한 연흥도
- 2 엄마의 품을 표현한 벽화가 아기자기한 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져 있다.
- 3 연흥도 입구 선착장에 늘어선 조형물

없어 꽤 지루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배 안에서 표를 끊고,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니 도착한 섬 연흥도.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빨소라 조형물이 사람들을 반겨준다. 이 조형물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 섬 여행을 시작하면 된다.

바라보다가 걷다가

소박한 일상의 풍경들이 담장마다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연흥도가 왜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지 알게 된다. 걸을 때마다 보이는 벽화와 조형물 덕분에 마치 미술관을 관람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정겹고 아기자기한 마을을 담은 이정표를 따라가면 연흥도를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다. 그래도 길이

헛갈린다면, 마을 초입에 자리한 안내소에서 지도를 받아도 되고, 오며 가며 만나게 되는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도 된다.

천천히 걷다가 마을 중간쯤 언덕에 자리한 정자에 앉아서 한참을 쉬어본다. 사방으로 보이는 바다가 일찍 찾아온 더위를 조금이나마 달래 준다. 정자에서 바라보면, 여러 섬이 보이는데 그 섬 중의 하나인 거금도와 맥이 이어져 있다 해서, 연흥도의 연을 '이을 연(連)' 자로 바꿨다는 설도 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단 거금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와 육지, 자연, 사람을 잇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자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아르골돌레길로 향했다. 대부분 연흥도에 오면 연흥미술관으로 먼저 향하지만, 연흥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아르골돌레길 코스를 택했다. 마을에서부터 한적한 숲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걷기에도 무리가 없고 힘들지 않아서 추천하고 싶다. 30분 남짓 아르골돌레길을 걷고 오면 다시 마을로 이어진다. 연흥도에는 아르골돌레길 말고도 좀바골돌레길, 연흥도담장바닥길이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3가지 산책길을 모두 둘러볼 것을 권한다. 섬 뒤편으로 보이는 완도의 금당도, 동쪽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절이도 해전지와 몽돌해변, 갯벌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

아르골돌레길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이제 연흥도의 중심, 연흥미술관으로 가볼 차례. 연흥미술관은 연흥도에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한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섬 안에 자리한 미술관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마치 "미술관이 곧 나타납니다"라는 걸 알려주기라도 하듯 연흥미술관으로 가는 길에는 잘 갖춰진 조형물들이 여행자를 인도한다. 조형물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덧 '은빛 물고기' 조형물이 앞에 보이는 미술관에 다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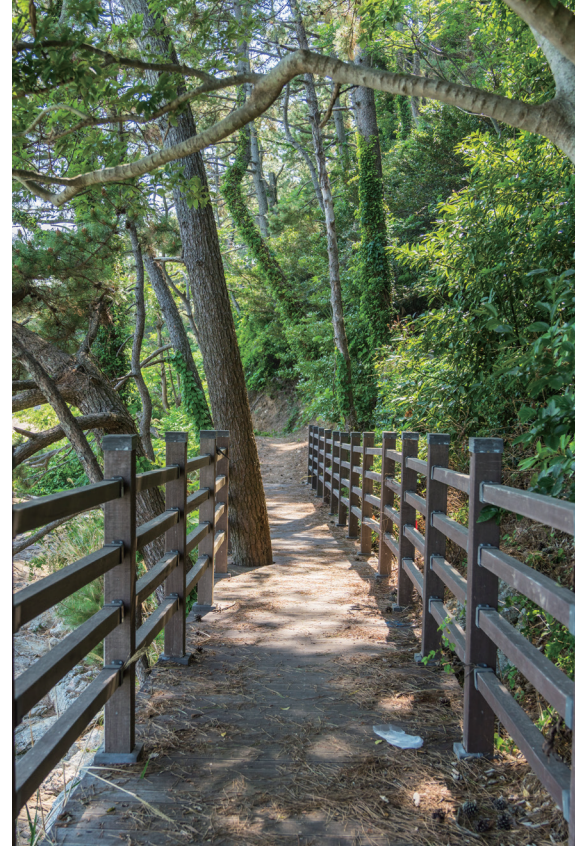
폐교를 개조해 2006년 문을 연 연흥미술관. 미술관담게 마당에는 여러 미술작품과 쉼터가



Info

가는 길 신양선착장에서 하루 7번 운항하는 배를 타야 연흥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계(4월~9월)에는 오전 7시 55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항한다.

여행팁 연흥도 선착장 입구에 '스마트연흥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는 카페, 특산물 판매는 물론 4D 해저체험관, 뮤비 컬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마련되어 있다. 수줍게 웃는 소녀의 벽화가 맞아주는 미술관 안에는 마침 지역 예술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다. 여수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김태완, 박진희 작가의 <창문 넘어 시나브로 부는 바람>展이었는데, 이렇게 전시가 열리지 않을 때는 지역 예술인들의 체류 창작활동이나 단체 연수, 주민 생활복지 시설로 이용된다고 한다. 짧은 관람을 마치고 미술관 옆에 마련된 갤러리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해 미술관 앞 쉼터에 잠시 머물렀다. 좀바골돌레길로 향하기 전, 섬이 필요했기에. 햇빛을 받아 빛나는 바다와 선선한 바람, 조용한 마을의 면면들에 또 다른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는 착각이 드는 걸 보니,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게 실감난다.

짧게는 두 시간, 많게는 네 시간. 연흥도를 들렀다 가는 사람들은 연흥도를 둘러보는 시간을 이렇게 한정짓곤 한다. 꽤 길게 섬에 머물다 온 입장으로는 섬을 돌아보는 시간을 정해놓는 건 무의미한 것 같다. 어느 한곳만 빠르게 돌아보고 오기에는 곳곳이 아름다웠고, 특유의 여유로움이 좋았으며,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누릴 수 있었던 연흥도에서의 모든 시간이 소중한니까. 🌊



⑦



⑧



- 4 연흥도를 소개하는 익살스러운 벽화
- 5 미술작품으로 가득한 연흥미술관 앞마당
- 6 마을부터 한적한 숲으로 이어지는 아르골돌레길
- 7 수줍게 미소짓는 소녀가 연흥미술관 입구를 지키고 있다.
- 8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게 만드는 은빛 물고기
- 9 고즈넉한 연흥도의 풍경

투명하게! 짜릿하게! 에메랄드빛 바다로 떠나는 힐링 여행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더 가까이에서 바다를 감상하고 싶다면 투명카누가 제격이다.
투명한 재질의 카누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여유로움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꿀템!
물멍, 파도멍, 하늘멍까지 다채롭게 즐기다 보면, 어느덧 방전된 에너지도 120% 풀 충전된다.
그림 같은 풍경을 지닌 강원도 삼척 장호항으로 떠나자.

Text. 송지유 Photo. 이승현

신비로운 바다, 그 투명한 매력에 풍덩!

눈부시게 투명한 에메랄드빛! 신비로운 빛깔로 일렁이는 바다에 마음을 빼앗긴 것도 잠시, 삼척 장호어촌체험마을 앞바다에 즐비하게 떠 있는 투명카누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장호어촌체험마을 앞바다는 수심이 얕아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때문에 투명카누는 맑고 투명한 바다 밑으로 크고 작은 바윗돌들이 깔려 있는 장호항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체험 코스로 인기가 높다.

장호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35대의 카누는 무게도 가볍고 초보자도 다루기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기본 2인승부터 4인승까지 구비되어 있으며, 연인과 친구, 가족 여행자들에게도 최고의 시간을 선사한다.

먼저 방파제 옆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한 후 카누 체험장으로 가면, 안내에 따라 구명조끼와 밀짚모자를 이용할 수 있다. 2인승의 경우 양쪽 뱃머리에 한 사람씩 앉아 패들이 달린 노를 이용해 카누를 즐기면 된다. 노 젓는 방법도 간단하다. 왼쪽으로 노를 내려 저으면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노를 저으면 왼쪽으로 향한다.





66

고요한 바다에 등실 떠 있는 몽롱한 느낌, 일렁이는 파도와 물그림자 사이로 물속 바위들이 눈에 박힌다.

99



그림 같은 바위섬 따라 Under the sea~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출발! 노를 내려 바닷물을 밀어내니 뱃머리가 돌아간다. 바람이 한 번 불면 획 방향을 전환해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도 하고, 야트막한 갯바위에 부딪힐 때면 짜릿한 스릴을 즐기기도 하며 점점 바다로 나아간다.

어느새 흔들림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자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고요한 바다에 등실 떠 있는 몽롱한 느낌, 일렁이는 파도와 물그림자 사이로 물속 바위들이 눈에 박힌다. “와, 너무 투명하다! 바다 밑바닥이 다 보여!”, “바위에 붙어 있는 게 군소야?”, “미역 흔들리는 거 보여?” 생생한 자연이 주는 감동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장호어촌체험마을의 투명카누 추천 코스는 선착장에서 출발해 바위섬 다리 밑을 통과하고, 바위섬 우측을 따라 경계선까지 200m 거리를 한 바퀴 빙 돌아보는 것이다. 바위섬 뒤편의 크고 작은 갯바위에서는 미역이나 골뱅이, 보말, 군소 등의 어패류와 물고기도 구경할 수 있다. 올여름부터는 체험장 주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국내 최초로 야간 투명카누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리니 물에 비친 하늘의 풍경까지 흔들려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 있다. 투명카누의 매력에 푹 빠져든 이들 사이에서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 🌊



The+ Enjoy

장호어촌체험마을 The+ 즐기기

장호어촌체험마을에는 아름다운 바닷속을 구경하고,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거리가 있다. 함께 즐겨본다면 더욱 알차고 즐거운 휴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스노클링 체험



장호항 바다는 모래가 깔린 얕은 바다와 갯바위가 있어 볼거리도 많고, 바위섬이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좋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바닷속을 유영하며 해초와 바다 생물까지 만나보자.

장비세트(스노클링 장비, 구명조끼) 11,000원,
단품(스노클링 장비 또는 구명조끼) 6,000원

씨워커 Seawalker



바닷속을 걸으며 구경도 할 수 있는 씨워커로 색다른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자. 잠수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바다로 입수하면 되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바닷속에서 붕을 잡고 걸으면서 바다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20분 35,000원

선상낚시 체험



낚싯배를 타고 바다를 생생하게 즐기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된다. 장호어촌체험마을 선상낚시 체험은 낚시를 ‘1’도 모르는 도시어부들도 짜릿한 손맛에 쉽게 도전할 수 있다.

070-4132-1601 / 1인 30,000원

삼척 해상케이블카




하늘을 가르며 바다 위로 활공하는 해상케이블카도 놓치지 말자. 용화리에서 장호리까지 운행하는 삼척 해상케이블카는 아름다운 항구와 바다 풍경을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한층 더 짜릿한 스릴감을 선사한다.

www.samcheokcablecar.kr / 033-570-4606 / 성인 10,000원(왕복), 6,000원(편도)



영양만점, 완전식품의 대명사 '전복'

이름만 들어도 웬지 기운이 솟아나는 식재료,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전복이다. 전복은 전복과에 속하는 바다 복족류로 단단한 둥근 테를 두른 귀 모양의 껍데기를 갖고 있다. 껍데기의 가장자리 한쪽에는 일렬로 작은 구멍들이 있고, 안쪽은 자개와 비슷한 진주빛을 띤다. 전복은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온 수산물로 '1일(日) 1복(鰓)하면 1월(月) 변신한다'는 말이 있다. 하루에 전복을 하나씩 먹으면 한 달 후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문신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저술한 어류학서 '자산어보'에서는 전복을 '복어(鰓魚)'라고 소개한다. '맛이 달아서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으며 증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전복은 조선시대, 제주도로 발령받은 관찰사가 한양으로 보낼 공물 중 가장 신경 썼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다. 우선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환자나 노약자를 위한 건강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또한 티우린 함량이 높아 간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시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전복 내장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자양강장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 나간 입맛을 불러들일 전복 맛 좀 보세요!

'바다의 산삼'

뜨거운 날씨로 온몸의 기운이 쭉쭉 빠지는 여름. 입맛도 푹푹 떨어지는 지금, 우리의 체력을 끌어올려 줄 보양 식품이 간절하다.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며 피로 해소, 노화 예방을 책임지는 전복의 매력을 찾아서!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Food Styling. 김형님

Recipe

여름 보양식의 꽃, 전복 영양솔밥



재료 전복 5마리, 불린 쌀 2컵, 물 1컵 + 2/3컵, 연근 1/4개, 표고버섯 4개, 양파 1/2개, 당근 1/3개, 쪽파 5줄기, 들기름 3큰술, 버터 1큰술, 맛술 1큰술, 양념장 간장 5큰술, 참기름 3큰술, 고춧가루 2큰술, 매실청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쪽파 1큰술, 통깨 약간

- | | | | |
|--|---|---|--|
| <p>1 전복은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은 뒤 수저를 이용해 껍질을 제거한다. 살과 내장을 분리하고 이빨을 떼어낸다.</p> | <p>2 전복 3마리는 격자무늬로 칼집을 내고, 나머지는 0.5cm 두께로 편썬다. 내장은 믹서에 곱게 간다.</p> | <p>3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표고버섯과 함께 0.5cm 두께로 편썬다. 양파, 당근은 곱게 다지고, 쪽파는 송송 썬다.</p> | <p>4 버터를 두른 팬에 전복살을 넣고 볶아준다.</p> |
| <p>5 들기름을 두른 팬에 전복내장, 맛술을 넣고 볶다가 당근, 양파, 표고버섯, 연근을 넣고 반쯤 익을 때까지 볶는다.</p> | <p>6 5에 짬을 넣고 볶다가 물을 넣고 섞은 후, 뚜껑을 닫아 중불에 10분 정도 끓인다.</p> | <p>7 6에 볶은 전복을 올리고 5분 정도 약 불로 익힌 뒤,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 들인다.</p> | <p>8 7에 썬 쪽파를 올리고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잘 섞은 뒤 솔밥에 곁들인다.</p> |

Belief & Trust

삶의 터전이자 일상의 행복인 바다

믿음과 신뢰로 한 걸음 더! 동해지사

강릉과 삼척 사이, 소박하게 자리 잡은 동해시에는 인정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동해지사가 있다. 타 지사에 비해 조직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이곳. 코발트빛 동해를 담은 생생한 기운을 품고, 안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동해지사를 찾았다.

Text. 한울 Photo. 전재천

어민들 곁에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항상 목표에 충실하고, 고객에게 마음을 다할 것.’ 동해지사가 업무를 해나갈 때 방향을 잡는 모토다. 동해지사는 반응수 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원 네 명과 두 명의 실무원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근무하고 있다. 반응수 지사장은 동해지사에 애정이 가득하다.

“재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사장으로서는 첫 부임지라 그런지 동해지사는 유독 애착이 많이 갑니다. 직원들 모두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도 즐겁습니다.”

동해지사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강릉, 동해, 삼척을 비롯해 내륙으로는 평창, 정선, 태백, 횡성, 원주, 영월을 관할한다. 총 1,290척의 선박 중 어선이 1,209척, 일반선박 81척이며,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911척을 책임지고 있다.

“지사장으로 부임하기 전 20년 넘게 전국 각지에서 현장 업무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각각 특색이 있는데, 동해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 어민들이 유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챙겨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과거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도 해안 지역은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동해의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업 현황이 나빠졌고, 근래에는 오징어 생산량까지 현저히 줄었다. 반응수 지사장은 어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표정이 되었다.

“어업이 잘 돼 삶이 좀 풍요로워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길 텐데, 어획량 감소로 수입이 적어지니 선박 소유주인 어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선박 관리 규정은 과거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에 선박 수리 비용이나 부품 교체 비용 등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은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하십니다. 고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 또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을 강화하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동해지사. 선박 안전 진단 서비스와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선주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안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양 안전과 관련된 업무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반응수 지사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공단과 동해지사를 믿을 수 있을 때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선박 점검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해지사 직원들은 ‘고객이 내 가족이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 안에서 보다 나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객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집니다.”

동해지사는 민원도 현저히 적은 편이다. 동해지사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윤영식 실무원은 적은 민원을 동해지사의 자랑으로 꼽았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는 고객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편이나

전화로 일이 해결되는데, 그만큼 불만사항이 없으시다는 방증 아닐까요? 이는 동해지사 전 직원들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일 겁니다. 본사에서 안내문이 나간 사안이라도 한 달 전에 꼭 안내 연락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고객들이 ‘바빠서 잊고 있었다’면서 무척 고마워하십니다.”

동해지사의 세심한 고객관리는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으로 이어진다. 이는 동해지사 직원들의 자부심으로 자리한다.

희망찬 내일을 위한 소통의 힘

반응수 지사장은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한다. 해결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개인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기 위해 노력한다. 또 직원들의 생일날에는 가능하면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케이크를 챙겨 보내는 일도 잊지 않는다.

동해지사의 ‘소통’과 ‘배려’는 팀워크를 단단히 다지고 업무 향상성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동해지사에는 온 지 4개월 차가 되었다는 전형준 책임검사원이 동해지사서 근무하고 있는 소감을 전했다.



66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99

“검사원으로 일한 지 올해로 1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직원들 간의 합(합)이 잘 맞으면 현장에서의 업무도 훨씬 잘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원 업무를 하면서 힘들 때는 정해진 법규와 현장의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 부합하게 법규를 수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검사원들과 고객은 물론 해양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지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금어기(어류 등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 기간)를 맞아 검사 업무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반응수 지사장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어떤 일이든 동해지사를 중심에 두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올해는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동해지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과도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동해지사는 ‘하나 된 동해지사! 도약하는 동해지사!’를 약속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해양 안전을 위해 열의를 다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푸른 바다는 항상 든든하다.

Mini Interview



동해지사 반응수 지사장

“해양 안전을 위해 늘 묵묵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동해지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한 검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고객들과 딱딱하고 결긋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1998년 입사한 이래 부산지부, 통영지부, 제주지부 등 20년 동안 검사 업무를 하며 많은 동료와 고객을 만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번 맺은 인연은 어디쯤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되더군요. 그래서 고객이든 동료든 늘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짐이 좋아야 다시 만났을 때 기분 좋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 속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발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지향하며 일을 한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늘 앞서나가는 동해지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 운항관리센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 으뜸이다!

동해 운항관리센터(이하 '운항관리센터')는 추교필 센터장, 최일과장, 민기현 대리가 마음이 척척 맞는 '원팀'으로 근무하고 있다. 운항관리센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된 이후부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춤했던 관광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관계없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동해시 묵호항에서는 강릉-울릉, 묵호-울릉 2항로 2척의 쾌속선이 운항되고 있다. 두 척 모두 44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울 수 있는 규모로, 지난 5월에는 90% 이상의 높은 탑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운항관리센터는 현장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추교필 센터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울릉도는 쾌속선으로도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깊은 바다를 오랫동안 운항해야 합니다. 또 쾌속선은 선박 규모가 작다 보니 기상 상황을 세심하게 관측해야 하고, 출항 이후에도 기상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 번에 400명 이상의 관광객이 탑승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항관리센터는 출항 전 검사에서 선박의 안전 상태는 물론이고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들의 컨디션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선원들의 상태가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다 위 부유물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작년에는 부유물과 관련된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고, 부유물로 인한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배를 운항하시는 선장님들에게 항상 주의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민기현 대리는 지난 4월 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한 '여객선 구명조끼 홍보 활동'에 참가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고객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뜨거웠기에 기억에 남는다고. "묵호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는 고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참여도 또한 높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안전에 대해 한마음이 되는 활동이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많은데, 저희는 고객들의 따뜻한 인사에서 힘을 얻습니다." 운항관리센터는 올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운항관리센터와 선주·선원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추교필 센터장은 통신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냈다. "현재 본사 주도로 통신 시스템을 SSB(Single Side Band)에서 VHF(Very High Frequency) 장비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66 저희 센터에서는 배를 운항하시는 선장님들에게 항상 주의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니까요.

99 저희 운항관리센터도 기기 설비를 변경 중입니다. 설비 변경이 완료되면 통신 여건이 더욱 향상돼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으로 가슴 깊이 무장한 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들의 각오 속에 여름 바다처럼 활기찬 기운이 넘쳤다. 🌊

Mini Interview



동해 운항관리센터 추교필 센터장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센터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지난해 7월 이곳 동해 운항관리센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해는 바다가 깊고 기상 변화도 많은 곳이라 철두철미한 운항관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운항관리센터 직원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함과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운항관리센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업무 방침을 중심에 두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행복과 심을 얻습니다. 또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는 안전한 바다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동해 운항관리센터는 행복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Live with the Sea

안전한 바다에서 행복을 낚는 사람들

삼척 오분리 어촌계

이름난 동굴과 멋진 풍광의 해변을 간직한 강원도 삼척. 여행객들에게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관광지이지만, 삼척에 자리한 어항들은 수많은 어민들의 터전이다. 작고 소박한 오분리항도 그중 하나. 동해지사 이영석 차장과 박동훈 주임이 어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오분리로 향했다.

Text. 한울 Photo. 전재천 Video. 성동해

소박하지만 활력 넘치는 오분항

삼척의 오십천 하류, 밀물과 바닷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자리한 작은 포구, 오분항. 고기잡이배가 늘어선 아담한 항구에선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긴다. 배에서 그물을 내리던 오분리 어촌계 김선호 계장과 '태종호' 선주 김선기 선장이 동해지사 이영석 차장과 박동훈 주임을 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손을 흔든다. 함께 있던 오분리조선소 김수남 대표의 얼굴에도 반색이 가득하다. "아이고, 오랜만에 차장님이라 주임님을 만나니 반갑네요! 그동안 잘 지냈지요? 동해지사 직원들도 다 잘 지내죠?" "네! 그럼요. 다들 잘 지내셨죠? 오분리에 와서 세 분을 보니 참 반갑고 좋습니다." 박동훈 주임의 말에 세 사람이 활짝 웃었다. 이들은 30~40년 이상 어업과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다의 베테랑들. 세 사람의

얼굴에서 광활한 바다의 여유가 느껴진다. 오분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선호 계장은 고향 오분리에 대한 애정이 깊다. 그는 올해로 7년째 오분리 어촌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동해지사에 전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 그가 오분리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오분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켰는데, 바로 이곳 오분항이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벌 출항지입니다. 이사부 출항 기념비가 이 근처에 있어요. 또 하나, 오분리의 자랑이라면 바다를 사랑하는 어민들이 성실하게 삶을 일궈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분항의 어선은 통발선과 자망선이 99%를 차지합니다. 어업의 강도가 타 지역보다 센 편인데, 대신 연간 소득이 높은 곳이지요."



오분리 어촌계 어민들의 이야기를 QR코드로 접속해 확인하세요!



오분항 오십천 하류는 육지로 올라오는 고기들의 길목이라 사시사철 낚시를 하는 강태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가을이면 연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 오십천으로 올라오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오분리에는 조선소도 남아 있다. 오분리조선소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는다는 김수남 대표는 어민들의 귀중한 협력자다.

“동해에서 삼척까지 제 손을 안 거친 배가 없죠. 배가 완성 혹은 복구돼 나갈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민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원래는 제주가 고향인데, 오분리에서 55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위해 힘을 모으다!

오분항을 드나드는 선박은 대부분 소형 어선이다 보니 꼼꼼하고 정확한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 철저한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은 해양사고의 저감! 김선호 계장과 김선기 선장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해지사 선박검사원들의 열의와 책임감이 대단하다며 엄지를 세웠다.

“선박 검사를 진행할 때 어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주시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근래 타 지역에서 소형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선박검사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오분리 어민들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선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줘서 무척 고맙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항상 일깨워주시니까 어민들이 늘 안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선박검사원들 덕분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김선호 계장의 칭찬에 이영석 차장과 박동훈 주임은 보람이 느껴진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선기 선장은 검사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젊어지다 보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으며 칭찬을 더했다. 세 사람은 동해지사의 장점으로 소통력을 꼽았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시때때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동해지사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면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힘든 일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풀어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이들

바다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는 애환이 자리한다. 때로는 만선의 기쁨이 넘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들도 슬하다. 하지만 바다 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들에게 행복이다.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는 까닭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듦과 고단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업을 통해 많이는 아니더라도 돈도 벌고 자식을 공부도 시켰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업 생산량이 지금보다 많아져서 오분리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 계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김선기 선장. 그도 “고기 많이 잡는 게 최고죠!”라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어민들의 걱정거리도 있다.

“어업이 힘든 일이다 보니 이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선원들 구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분리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우산국 정벌 출항지인 오분항 일원이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 출항지 주변으로 바다전망대와 해변산책로 등이 갖춰질 예정이고,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도 완공 계획에 있다. 김선호 계장은 “관광지가 조성되면 이곳 오분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민들도 관광산업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라며 희망찬 청사진을 그렸다. 🌐

Mini Interview



오분리 어촌계 김선호 계장

어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동해지사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지금도 매우 잘해주고 있지만, 선박 검사와 관련된 안내와 홍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오분리조선소 김수남 대표

최선을 다하는 선박검사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가 과거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세한 어민들의 상황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종호 선주 김선기 선장

선박검사원들이 애써주는 덕분에 어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어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면서 다 함께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easide Car Camping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해안가 차박 에티켓



나의 애마를 타고 여행을 떠나 차에서 먹고 자는 낭만적인 여행,
차박이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여행 문화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에티켓 문화는 아직 덜 성숙한 상황.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해안가 차박 안전수칙을 전한다.

Text. 엄세권 Reference. 해양경찰청 블로그



만수선 위로 주차하세요

차박을 하는 사람들은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곤 한다. 그러나 해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 간혹 모래에 빠져 고립되거나, 갑작스러운 파도나 기후변화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해안가에는 물이 차오르는 최대 지점인 만수선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만수선보다 위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에 주의하세요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캠핑 안전사고 중 약 62%가 화재 및 가스 관련 사고다. 불을 사용할 때는 마른 잔디나 풀밭을 피하고, 주변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물건이나 전자제품이 있는지 꼭 확인한다. 또 숯불이나 가스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지참하자. 모닥불을 피운 뒤에는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한 뒤에 잠자리에 든다.



차박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세요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은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차박은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 준비 없이 해안가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림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이나 개인 사유지, 해안 방파제 등에서 야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차박을 금지하는 해수욕장도 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 등을 통해 차박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거세요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차가 바다나 도로 쪽으로 굴러간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평평한 곳에 주차를 해도 강한 바닷바람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자동차 바퀴 아래에 큰 벽돌이나 나무를 두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 근처에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피하자.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세요

해양 쓰레기가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여름 바닷가에는 쓰레기가 넘친다. 차박을 즐기고 난 후 발생한 쓰레기들은 모두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캠핑장의 경우 분리수거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만약 캠핑카를 이용했다면 오수통을 비워줘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오수관이나 자연에 무단방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여름밤 바닷가에서는 폭죽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차박의 경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식을 해먹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지나친 소음으로 주변 민가나 다른 차박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해가 지고 나면 폭죽이나 스피커는 지양하고, 되도록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 밝은 조명을 이리저리 비추는 것도 매너가 아니니 주의할 것. 🗣️



바다 지킴이 등대의 역사가 이곳에! 국립등대박물관

어둠이 내려앉은 밤바다를 밝혀주는 빛, 등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등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 있으니 바로 '국립등대박물관'이다. 7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하는 국립등대박물관을 방문한다면 분명 기대 이상의 해양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Text: 박영화 Photos Provided: 국립등대박물관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

1908년 세워진 호미곶등대가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에 선정됐다. 국립등대박물관은 건축적 특성과 예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호미곶등대 옆에 위치해 있다. 1985년 처음 문을 연 국립등대박물관은 호미곶등대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사라져 가는 등대 자료를 한데 모아 전시·보존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등대의 역할과 선박 안전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등대 외에도 항로표지 시설들이 산업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변화로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영구히 보존·전시하고, 그 역사를 조사·연구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국립등대박물관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7월 1일, 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할 예정이다. 전시관은 상설전시실1 <등대의 시간>과 상설전시실2 <등대와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로표지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 원리, 인물로 나눠 스토리텔링했으며, 항로표지에 숨은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콘텐츠로 구성된 '영유아 바다 놀이터'도 새롭게 꾸몄다. 역사관에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항로표지 기술 발달에 대한 설명 및 시대별 등대 건축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등대 건축 모형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전시관 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 푸른 바다와 갈매기,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곳에서 온전히 해양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국립등대박물관으로! 🌊

관람시간 9:00~18:00 *추후 변동 예정, 변동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lighthouse-museum.or.kr/>)에서 확인
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입장료 무료 문의 054-284-4857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0번길 20



Starfish Recycling

해양생태계의 포식자 불가사리, 얼어붙은 눈 녹이는 제설제로 재탄생!

알록달록한 색에 별 모양의 몸통을 가진 해양생물 불가사리.
그저 예뻐 보이지만 하는 불가사리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라면 어떨까?
바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불가사리를 이용해 환경을 구하는 방법, 지금 살펴보자!

Text. 최미혜 Reference. (주)스타스테크




환경을 살리는 불가사리 제설제의 등장

'불가사리'라는 이름은 몸을 아무리 잘라도 다시 재생되어 죽일 수 없다는 불가살이(不可殺伊)에서 유래했다. 실제로 불가사리는 몸이 잘려도 쉽게 재생하고, 영하 30℃의 날씨에도 살아남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게다가 수중에 천적이 없어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를 먹어 치우기 때문에 바다 사막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불가사리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3,000~4,000톤 규모의 불가사리를 수거하고 있다. 이를 소각하는 데 약 7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발생한다.

이렇게 '바다의 쓰레기'로 취급받아온 불가사리가 리사이클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는 비전을 가진 국내 기업 '스타스테크'를 통해서다. 스타스테크는 겨울철 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불가사리에서 찾았다. 기존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얼어붙은 눈을 녹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제설제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염화이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파손, 철 부식은 물론 식물 황화작용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제설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부식률이 낮은 반면 얼음을 녹이는 성능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의 골편에서 추출한 탄산칼슘 다공성 구조체에 주목했다. 이 다공성 구조체는 염화이온 흡착으로 고농도의 염화이온 상태를 억제해 환경을 보호하며, 부식방지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 제품의 1/3 수준만 사용해도 염화나트륨 대비 29배의 부식 방지 성능을 보여준다. 더불어 불가사리로부터 골편, 콜라겐 등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을 액상비료로 만들어 완벽한 업사이클링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불가사리 제설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를 취득했고, 향후 전 세계 친환경 제설 시장을 주도할 예정이다. 제설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의 포식자 불가사리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한 친환경 기술은 인간과 환경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 

Marine Meteorology

이번 기회 꼭 알아두자! 해상 기상 특보 용어

“제주도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28일 00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기상청의 예보. 기상 악화가 예상될 때는 기상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데,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면 주목하자. 알아두면 유용한 해상 기상 특보 용어!

Text. 박영화 Reference.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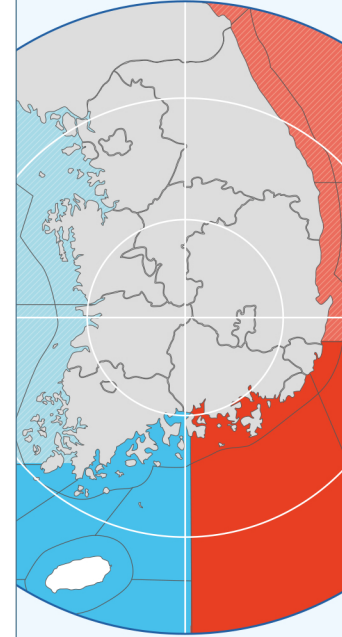
풍랑주의보·풍랑경보

해상에서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풍랑'이라 한다. 풍랑이 심해 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랑주의보'나 '풍랑경보'의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해상에서 10분 동안의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표하고, 이보다 심할 때 풍랑경보를 발표한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선박들은 조업이나 운항을 중지하고 대피해야 한다. 또 시설물을 보호하고 보강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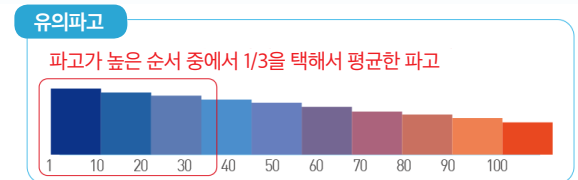


태풍주의보·태풍경보

태풍이 북상하여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기상청에서는 '태풍주의보'를 발표하게 된다.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그 이상을 넘어 경보 기준에 도달하면 '태풍경보'를 발표한다. 특히 태풍으로 인하여 ①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태풍경보다.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도기관이나 방재(防災) 관련기관 등에 알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가옥·위험 축대·대형 공사장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또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산간 계곡에 있는 야영객을 대피시키는 것도 필수다. 해안에서는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선박을 대피시키고,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결박한다.



- 평균풍속** 관측시간 전 임의의 시간 동안의 평균풍속을 의미하며, 통상 10분간 평균풍속
- 최대순간풍속** 임의의 시간 중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속
- 최대파고** 어떤 관측 시간 또는 기간에 관측되는 가장 큰 파고, 즉 최대파의 파고 높이
- 유의파고** 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의 높이(파고) 중 가장 높은 파고부터 1/3에 해당하는 파고의 높이들의 평균 높이



Forest

온전한 힐링을
꿈꾸는 곳
그 여름,
치유의 숲에 가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과 그늘이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여기에 힐링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다.
숲길 산책을 통한 느린 휴식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서천 치유의 숲을 찾은
KOMSA인들의 특별한 시간을 함께 했다.

Text. 최미혜 Photo. 고인순, 배가람
Video. 성동해 Place. 서천 치유의 숲



본사 직원들의 '치유의 숲' 체험 영상을
QR코드로 접속해 확인하세요!

Healing





통나무로 몸을 지압해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목 뒤부터 발목까지 통나무의 위치를 옮기며 혈액순환을 도왔고, 눈 위에 아이 필로우를 올린 후에는 싱잉볼 명상으로 넘어갔다. 싱잉볼을 치면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진동이 몸에 전달되어 온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명상에 집중한 KOMSA인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며 체험을 마무리했다.

팀장님의 추천으로 참여했다는 전략기획실 두지수 주임은 맨발 걷기 체험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직원들과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와 회사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즐겁게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입사 5개월 차인 운영지원실 어현우 주임은 싱잉볼 명상을 꼽았다. 그는 “누워 있는 동안 명상을 하며 치유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실과 직급의 직원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동료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한 이날의 경험이 KOMSA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 🌿

몸과 마음을 돌보는 숲의 힘

자연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다. 특히 숲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숲에 존재하는 햇빛과 피톤치드, 음이온 등 다양한 환경요소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효과를 목적으로 38곳의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중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문을 열어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서천 치유의 숲에 KOMSA인들이 방문했다. 서천 치유의 숲은 곰솔, 소나무, 참나무류 숲길을 활용한 외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아로마테라피, 통나무 명상, 싱잉볼 명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안전정책실 김영두 실장부터 운영지원실 어현우 주임까지, 7명의 KOMSA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천 치유의 숲 입구에 발을 내디뎠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짙은 풀 내음이 코끝을 감싼다. 데크 로드를 따라 300m 정도 걸으면 치유센터에 도착하는데, 가는 길마다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저수지를 둘러싼 데크 로드는 자연의 풍광을 한눈에 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치유센터로 가는 길부터 힐링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정말 기대돼요.” ESG혁신실 이은비 대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산림치유로 자연의 일부가 되다

기본 좋은 걸음으로 치유센터에 도착하자, 산림치유지도사가 KOMSA인들을 맞이한다. 힐링을 위한 첫 번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면역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숲길 걷기. 치유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시원한 그늘이 이어지는 숲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치유명상 데크에 도착했고, 곧바로 향기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유지도사는 각 사람의 손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오렌지향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린 후, 오렌지향이 몸속 깊숙이 전달된다는 느낌으로 음미하라고 권했다. 이후에는 페퍼먼트 오일을 이용해 갑상선, 관자놀이 등을 마사지하는 법을 배웠다. KOMSA인들은 몸 구석구석 열심히 오일을 바르는 서로를 지켜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농담을 주고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맨발로 숲길을 걸어볼 시간이다. KOMSA인들은 치유지도사를 따라 맨발로 걷다가 종이 울리면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자연을 오롯이 느꼈다. 발에 닿는 흙의 감촉, 바람 소리, 풀 내음에 집중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이다.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평소 우리 몸에 남아있던 전자파가 발을 통해 빠져나가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위치 충남 서천군 중천면 충서로302번길 104-38
문의 041-953-8771
운영시간 3월 1일~10월 31일(09:00~18:00) / 11월 1일~2월 말 (09:00~17:00)(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휴무)
체험료 일반 5,000원, 단체 15인 이상 4,000원 (서천군민 등 요금 할인은 홈페이지 참고)

KOMSA인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힘든 일과 감정을 자연에 내려놓으라는 말에 한결 더 편안해진 표정을 지었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수돗가에서 발을 닦았다. 시원한 물에 흠을 흘려보내면서 걱정과 근심도 함께 떠나가는 듯하다. 가위바위보로 신발 챙겨가기 내기를 하는 KOMSA인들에게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발을 모두 닦은 후에는 따뜻한 모시앉차를 마시며 주변의 둘러봤다.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되는 풍경에 모두가 다시 한번 숲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소통과 힐링을 경험하는 시간

이후 KOMSA인들은 치유센터로 돌아가 마지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바로 통나무 명상과 싱잉볼 명상이다. 먼저 진행된 통나무 명상은 각자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하며



Life Jacket Campaign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KOMSA <나랏죽> 시즌 3와 만나다!

'나랏죽'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낱알이 파헤치는 프로그램, MBC 웹예능 <나랏죽> 시즌 3가 KOMSA에 뒀다!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20년 차 가수 '노을'의 강균성과 아이돌 그룹 '골든 차일드'의 멤버 이장준이 KOMSA의 인턴으로 참여한 것.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종횡무진했던 KOMSA의 일과 속으로~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KOMSA에 나랏죽 먹으러 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MBC 웹예능 <나랏죽> 시즌 3 촬영을 위해 장비를 든 스태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날은 시즌 1부터 인턴으로 참여한 강균성과 일일 인턴 이장준이 KOMSA의 업무를 체험하는 날이다.

오프닝 촬영 장소는 KOMSA가 관리 중인 인천-제주 카페리선 '비온드 트러스트호' 앞. 승객 81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7,000t급 최신 대형 선박이다.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비온드 트러스트호 앞에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4대의 메인 카메라가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인턴들은 거센 바닷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밝은 모습으로 사수를 맞이했다. 첫 번째 사수는 본사 교통안전정책실 김지아 연구원. 업무 소개를 하는 사수를 보며 강균성 인턴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름이 좀 길어서 헛갈리네요. 한국교통해양... 아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얼른 익힐게요"라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옆에 서 있던 이장준 인턴은 연신 신기하다고 말하며

"이런 큰 배는 타본 적이 없어요. 오늘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오프닝 후 모든 스태프들은 비온드 트러스트호 안으로 이동했다. 길게 이어진 갑판 위를 걷고, 사다리와 계단을 올라 도착한 5층 데크에서 다음 촬영이 진행됐다. 두 번째 사수인 인천지사 김현빈 과장은 인턴들에게 KOMSA와 비온드 트러스트호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은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 항목 중 하나인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조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구명조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양안전실천본부가 진행하는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손동작을 배운 인턴들은 "아이돌 대형으로 멋지게 해볼까요?"라며 사수와 함께 포즈를 취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두 손을 높이 들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인턴들은 사수팀이 쓴 커피를 마시며 KOMSA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를 나누던 이장준 인턴은 오늘 배운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손동작을 '2022 드림콘서트'에서 엔딩 포즈로 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인턴들은 연안부두로 자리를 옮겨 인천 운항관리센터 한준희 대리를 만났다. KOMSA의 선박 검사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배에 올랐고, 모든 촬영이 마무리됐다. 두 인턴은 KOMSA가 어떤 기관인지, 구명조끼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나랏늬> 시즌 3를 통해 소개될 KOMSA의 업무와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캠페인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66
 구명조끼는 익사 등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저체온증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역할도 하죠.
 99



해양안전, 구명조끼로 지켜요!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촬영을 마친 후에는 <나랏늬>의 하이라이트, '나랏늬 게임'이 진행됐다. 사수팀과 인턴팀으로 나뉘어 어느 팀이 구명조끼를 더 빨리, 정확하게 입는지 겨뤄보기로 한 것이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김현빈 과장은 다시 한번 구명조끼 착용법과 착용 이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바다에 빠졌을 때 조난자의 최대 생존 시간은 수온이 5℃일 때 1시간, 10℃일 때 2시간, 15℃일 때 6시간, 20℃ 이상일 때 24시간입니다. 구명조끼는 익사 등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저체온증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역할도 하죠." 인턴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입고, 호루라기를 불어보며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모습이였다.

드디어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목걸이형 구명조끼 입기가 시작됐다. 구명조끼를 목에 걸고, 허리끈을 등 뒤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옆에 달린 버클에 채운 후 호루라기를 불면 된다. 처음에는 양 팀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더니, 어느새 인턴팀의 역전! 이장준 인턴이 가장 먼저 호루라기를 불며 승패가 결정됐다.

생명을 살리는 바닷가 필수템!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지난 2013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해양안전문화 사업을 통한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안전실천본부'가 출범했다. KOMSA는 해양안전실천본부의 사무국으로서 2014년부터 다양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캠페인 '구명조끼 해(海)주세요'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2020년부터 진행된 캠페인이다.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 홍보를 진행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양안전실천본부 SNS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확산과 참여를 유도한 결과, 유튜브

캠페인 영상 조회수 138,819회, 캠페인 참여 누적 게시물 총 4,579개를 달성했다.

올해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나랏늬> 시즌 3),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 및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아기상 어가족' 활용 대국민 홍보, 해양안전교육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등을 진행 중이다.

해양안전 캠페인의 목표는 국민이 구명조끼를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실천하며, 나아가 구명조끼 착용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OMSA는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 확보는 물론 일관성 있는 중장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나갈 것이다.

Smart Fishing Boat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선 설계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착수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KOMSA가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소형 어선의 안전 강화와 다양한 표준어선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KOMSA의 활동을 소개한다.

Text. 최미혜



AI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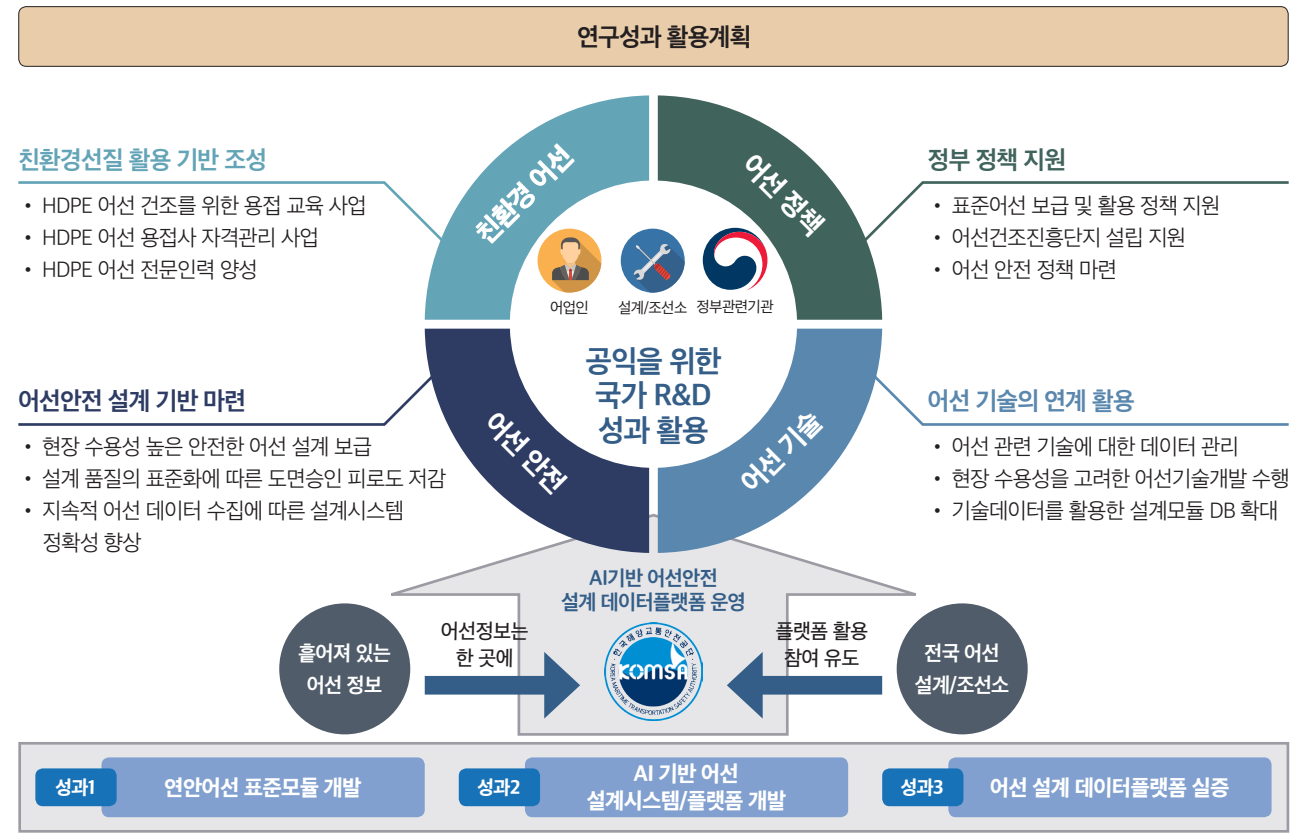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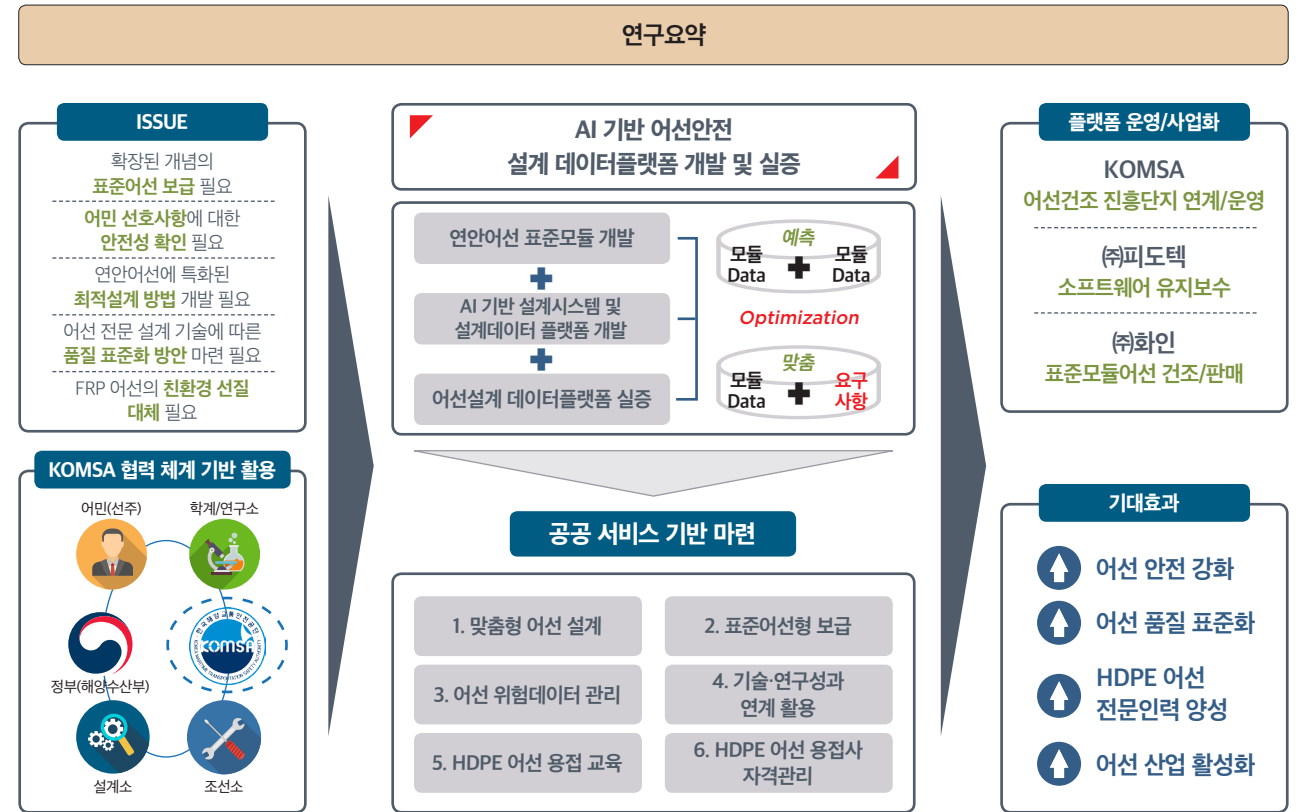
KOMSA와 어업인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KOMSA는

어업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어업인은 이러한 KOMSA를 신뢰하며 더 좋은 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탠다.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했다. 특히 소형 어선의 안전성과 효율은 높이면서, 건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 이에 KOMSA는 해양수산부의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 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수임해 해당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출연금 약 197억 원이 투입되며, 주관연구기관인 KOMSA 외에 (주)피도텍,

(주)화인 등 총 14개의 산학연 기관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 연구과제는 선체(선형), 상부 구조물, 추진시스템, 어업시스템 등 연안어선에 대한 다양한 모듈 데이터를 개발하고, AI를 활용해 모듈 데이터가 조합된 모델의 성능을 예측, 어업인의 요구에 맞춘 어선 모델을 제시한다. 공학적인 검증이 어려운 연안어선 관련 설계소나 조선소 등에서 영업 및 설계 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어선 개발 관련 기존 과제들은 안전보다는 복지공간, 운항효율, 친환경 추진 등에 중점을 뒀지만, KOMSA가 진행하는 이번 과제는 AI 활용을 통해 어선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에 집중했다. 또한 과거에는 한정된 어선 모델에 대한 개발만 이뤄진 반면,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 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은 2톤급부터 9톤급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어업인의 폭넓은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KOMSA에서는 친환경 선질로 주목받고 있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즉 친환경 플라스틱 어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기간 동안 HDPE 어선 구조기준의 개발과 용접체계를 마련하고, 시제선 건조 등을 수행해 FRP 어선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선질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신설되는 인천과 목포의 스마트검사센터에서 HDPE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해 친환경 선질 어선 보급에 기여할 것이다. 현장 수용성 높은 안전한 어선의 설계 보급으로 해양사고 저감에 기여할 KOMSA의 행보를 응원한다.



KOMSA NEWS

2022 Summer Vol. 50

2년 연속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



공단은 지난 4월 15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활동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올해는 총 1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공단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경석 이사장은 "이번 수준평가를 통해 공단의 안전경영 체계 및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경영 가치'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석 이사장, 권역별 현장점검 진행



김경석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 공단 관할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 이사장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경영 실천과 해양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5월 10~11일 중부·동해권역(서울·보령·태안·당진·동해·속초지사), 18~19일 서해권역(여수·고흥·완도·전북·제주지사), 25~26일 남해권역(울산·경북·창원·통영·사천지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어업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것을 주문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운영 돌입



공단은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기상청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서비스 4종인 인포그래픽, 사고통계, 해양사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체계) 분석, 해양사고 예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공단은 MTIS를 통해 수년간 축적한 해양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2020년과 2021년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해양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을 MTIS에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며, 이번에 공개되는 MTIS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MTIS(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 mtis.komsa.or.kr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044) 330-		
이사장	T. 2200~2	F. 2352
ESG혁신실	T. 2410	F. 2466
교육훈련센터	T. 2470	F. 2479
기획경영본부장	T. 2203	F. 2352
전략기획실	T. 2210	F. 2353
인재경영실	T. 2220	F. 2354
운영지원실	T. 2230/2380	F. 2357
윤리준법실	T. 2295	F. 2299
교통안전본부장	T. 2208	F. 2352
교통안전정책실	T. 2300	F. 2309
교통안전평가실	T. 2310	F. 2319
해양사고예방실	T. 2340	F. 2339
검사안전본부장	T. 2204	F. 2352
검사관리실	T. 2260	F. 2358
검사기준실	T. 2270	F. 2359
도면승인실	T. 2280	F. 2363
기술사업실	T. 2434	F. 2440
안전준호본부장	T. 2206	F. 2352
운항관리실	T. 2370	F. 2379
운항제도실	T. 2381	F. 2379
운항상황관리센터	T. 2670	F. 2389
기술연구원장	T. 2205	F. 2352
스마트안전연구실	T. 2450	F. 2461
해양환경연구실	T. 2250	F. 2365
어선연구실	T. 2570	F. 2579
노동조합	T. 2360	F. 2367
감사실	T. 2320	F. 2364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2268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인천지사(032) T. 764-6181~3 F. 764-6184 인천 운항관리센터(032) T. 889-3945~54 F. 889-4061	당진지사(041) T. 358-8697~8 F. 358-8641	서울지사(02) T. 2671-7838~9 F. 2671-7841
태안지사(041) T. 674-5447~8 F. 674-5449	속초 동해	속초지사(033) T. 635-5394 F. 631-6002 동해지사(033) T. 535-8091, 8093 F. 535-8094 동해 운항관리센터(033) T. 534-8437~9 F. 534-8440
세종본사(044) T. 330-2380 F. 330-2357	대전 당진 세종 보령 전북	경북지사(054) T. 246-5394~5 F. 246-5396 경북 운항관리센터(054) T. 256-9784~7 F. 256-9788
보령지사(041) T. 933-3981, 5863 F. 932-1855 보령 운항관리센터(041) T. 931-9083~6 F. 931-9087	목포 완도 고흥	울산지사(052) T. 261-6124~34 F. 265-5394
전북지사(063) T. 452-8187~8 F. 452-8189 전북 운항관리센터(063) T. 471-7486~9 F. 471-7490	여수 사천 통영	부산지사(051) T. 638-6221~3 F. 638-6226 부산 운항관리센터(051) T. 469-8425~6 F. 469-8427
목포지사(061) T. 245-6142~4 F. 245-6145 목포 운항관리센터(061) T. 247-9457~66 F. 247-9594	제주	사천지사(055) T. 833-5394, 4998 F. 832-1484 창원지사(055) T. 222/246-6774 F. 246-7838
완도지사(061) T. 554-1474, 1480 F. 554-0069	여수지사(061) T. 654-5262~4 F. 654-5265 여수 운항관리센터(061) T. 662-9713~8 F. 662-9719	통영지사(055) T. 645-6011 F. 644-8661 통영 운항관리센터(055) T. 649-8430~6 F. 649-8438
완도 운항관리센터(061) T. 555-4023~8 F. 555-4029	제주지사(064) T. 721-7401~2 F. 702-7404 제주 운항관리센터(064) T. 759-9780~3 F. 759-9786	
고흥지사(061) T. 843-4-5394 F. 844-1369	고흥 운항관리센터(061) T. 844-9012~3 F. 844-9014	

본사로 오시는 길



초성 퀴즈

<해안선> 독자를 위해 준비한 초성 퀴즈를 공개합니다!

아래 문장에 들어간 초성을 보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묘지기

MBC 웹예능 <나랏님> 시즌 3에 KOMSA가 떴다!
'기묘지기' 해(海)주세요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KOMSA의 인턴 체험에 나선 것이다.

HINT

<해안선> 여름호 42p '좁은 KOMSA'를 확인하세요!

- 참여기간 2022년 6월 24일(금) ~ 7월 22일(금)
- 참여방법 QR코드로 접속, 정답 제출
- 당첨인원 15명(랜덤 추첨)
- 당첨선물 CU편의점 상품권 1만원 권(1명), 5천원 권(14명)
- 선물발송 참여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초성 퀴즈를 풀고, 하단에 <해안선> 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갑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만들어갑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새롭게 출범한 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상교통안전 진단, 친환경 선박 보급 등 국민의 안전과 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해양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과 함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바다로, 글로벌 해양강국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